

투데이

벼 경영안정비 지급방식 변경 '논란'

전남도 올 550억 직불금 비율 50%로 감축 50%는 공동시설 지원...농민들 강력 반발

전남도가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 방식을 변경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전남도가 올해부터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율을 대폭 줄이면서 비롯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형태로 지급돼 왔으며 전남도의 경우 신안·화순·완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직불금 형태로 농가에 현금 지급됐다.

전남도는 최근 벼 경영안정대책비(550억)의 직불금 비율을 50% 이하로 줄이는 대신, 쌀 산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 단위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50% 이상 사용토록 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을 시·군에 통보했다.

농업전문가·농업인 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도 30만 원 가량 소액 지급되는 직불금으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이나 벼 공동육묘장, 벼 공동건조장 등 실질적인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경지면적에 따라 직접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 조례'를 주민 발의로 1만 6208명의 서명을 받아 신청했다.

이들은 전남도의 정책이 말만 경쟁력 확보일 뿐 현장에서는 일부 특정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남도의회가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 지난해 말 예산 심의를 보류하면서까지 경영안정대책비를 늘렸는데 급작스럽게 비율을 바꾼 점, 해당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

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마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환되면 영세 농에 대한 지원은 더욱 고갈되고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러나 "농민단체의 우려대로 특정 계층에 유리하지 않도록 마을 단위로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 협약 마련 및 농민단체와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면서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도 엄격히 해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55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

'2012 적십자 사랑의 등불' 점화식이 18일 오전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현장에서 열렸다. 김필식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허남석 곡성군수 등이 사랑의 등불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지수기자 jeans@

문화재청 '광주 민주의 종' 제작기법 검증키로

3월 자문위원회 구성

문화재청이 깨진 상태로 납품해 물의를 빚은 '광주 민주의 종' 제작 기법을 검증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8일 "광주 민주의 종 제작자인 주철장 원광식씨의 종 제작 기법이 담긴 기록화 책자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3월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록화 책자는 지난 2006년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원광식씨의 기술과 시연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 자문위원회는 책자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문화재청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법을 검증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원씨의 종 제작 기법이 맞는지 확인될 것"이라며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원씨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를 해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원씨에게 6월까지 민주의 종 제작을 의뢰한 상태에서 만약 중요무형문화재 주철장의 공신력에 흠집이 생긴다면 재제작될 종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도 민주의 종 제작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원씨는 최근 종 하단에 15cm가량의

금이 간 상태에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주의 종이 밀랍주조공법이 아닌 현대기법으로 제작됐으며 종 무게가 명세서에 적힌 30.5t에 훨씬 못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원씨는 "종 무게는 오히려 30.5t이 넘고 주조 기법도 특허를 받은 밀랍주조공법을 활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반박했다.

광주시는 시민 성금 등 14억6천여 만원을 들여 2005년 10월 옛 전남경찰청 차고에 종을 제작 설치하고 11월 1일 시민의 날에 첫 타종을 했다. 민주의 종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때문에 2008년부터 환경관리공단에 임시 보관 중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자전거 보유 11만대 전국 최저

이용 비율도 평균 이하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수단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보유대수의 경우 광주는 11만대로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2.16%로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이 날 발표한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자전거 이용비율은 1.54%로 제주(1.12%)와 부산(1.07%)을 제외하면 전국 최저수준이었다. 광

역 지방자치단체 중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3.36%)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자전거 이용 10대 거점도시' 중에서는 충북 증평군이 4.93%로 가장 높았으며, 순천시는 1.13%였다. 순천시의 자전거 보유대수(추정) 2만6097대로 인구 1000명당 101대로 나타났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자전거 총 보유 대수는 620만대로 서울, 충북, 경북이 인구 1000명당 150대로 보유율이 높은 편이었다.

광주는 11만대로 제주(4만대)와 함께 가장 보유대수가 적었으며, 전남도 17만대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원 관계자는 "자전거는 보유대수나 교통수단 분담률 등 기초적인 통계 구축이 미흡해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자전거 부분의 기초통계와 주요 지표 개발에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총 보유 대수는 620만대로 서울, 충북, 경북이 인구 1000명당 150대로 보유율이 높은 편이었다. 광주는 11만대로 제주(4만대)와 함께 가장 보유대수가 적었으며, 전남도 17만대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원 관계자는 "자전거는 보유대수나 교통수단 분담률 등 기초적인 통계 구축이 미흡해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자전거 부분의 기초통계와 주요 지표 개발에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과·쌀엿, 나트륨 적은 '웰빙 식품'

전통 한과와 쌀엿이 일반 스낵과자류보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설탕 함량이 적은 '웰빙 식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조 사한 전통 한과와 쌀엿에 대한 성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과의 나트륨 함량이 1kg당 332mg으로 쌀 스낵과자류(1kg당 3848mg)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중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포화지방산 함량도 한과(16.7%)에 비해 쌀 스낵과자류(37.8%)가 2.3배 많았다.

또 한과와 쌀엿은 말토오스(maltose)·말트트리오스(maltotriose)와 같은 올리고당이 주요 당류인데 반해 쌀 스낵과자류는 설탕(sucrose)이 주요 당류로 분석됐다.

특히 쌀 스낵과자류는 합성착향료·유화제·향미증진제 등 다양한 합성 식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통 한과와 쌀엿은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이 지역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한과·쌀엿과 시중에 유통 중인 쌀 스낵과자류의 성분을 분석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지수기자 dok2000@wangju.co.kr

병아리 폐사 양계농가 보상범위 넓어진다

하림, 마니커 등 육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병아리가 일주일 뒤 폐사하더라도 양계농가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계농가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육계 사업자와 양계농가 간의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육계계열화란 하림, 마니커 등 육계사업자가 양계농가에 병아리, 사료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면 양계농가가 일정기간(대략 28일) 병아리를 키워 수수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은 병아리 공급 후 7일이

내 폐사 시 사업자가, 이후엔 양계농가가 책임지도록 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7일 후 폐사하더라도 불량 병아리가 원인이라면 사업자가 보상하고 폐사원인을 전문가로 진단으로 규명하도록 했다.

사육경비는 매년 1회 이상 물가상승, 원자재 수급상황을 고려해 합의로 정하고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자는 하림, 마니커, 동우 등 20개 민간기업과 농협 목우촌, 영농조합법인 등 11곳이 있으며 사육농가는 1763호이다. 작년 육계 사육두수(7천787만마리)중 85%가 계열화사업 형태이다. /연습스

뉴스 브리핑

국가 R&D사업 열린평가단 모집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적정성을 따질 평가단이 꾸려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부터 도입된 국가R&D 사업 '개방형 평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100여명의 열린평가단을 온라인(http://open-eval.ntis.go.kr)을 통해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부, 장례문화 정보 어플 제공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례식장 안내와 상·장례 절차 등 장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늘 장사정보 앱'을 제공한다고 18일

수산자원 보호구역내 단독주택 허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모든 종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거제 한산만과 태안 천수만, 여수 여자만 일대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농어가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별장용 단독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조선대 관상학: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방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 사주명리학: 광주시내 평생교육원중 가장 많은 수강생이 몰려드는 그 비결은? 한번 들으면 인생의 모든 비밀이 눈에 확 들어온다! 최첨단 영상으로 학습능력을 배가 하고 집에서 다음 카페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주간	2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14-16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학 야간	3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1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 주간	3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 야간	3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2월 1일 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2월 1일 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속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대출 포함)

APT 한도: KBA세-80%+α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80% (6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시달리는 분 (병의, 신병)

-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 불면증 / 학습장애
-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환상한 해경이 가능합니다!**

최면요법으로 병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범공
문의 062-228-6606, 010-3747-6606

경매특자

- ◆ 실전 경매 개인지도 받으실 분
- ◆ 경매비법 노하우 전수
- ◆ 유치권등 특수물건만 전문 투자
- ◆ 주1회 3개월 완성, 강의로 330만원

주최: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csg5000@hanmail.net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리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